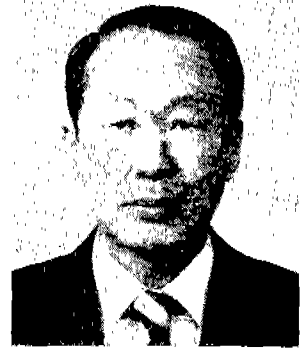


最大問題化될 輸入自由化

死活은 品質의 國際水準 向上에



張 炳 贊

大韓電氣協會副會長 ·
利川電機工業(株) 代表理事

새해부터는 우리 電氣界도 輸入自由化가 으뜸가는 問題가 될 것이다. 15年前에 日本도 輸入自由化는 深刻한 問題로서 業界의 決死的 反對가 대두되었으나 結果的으로는 그것이 契機가 되어 그들의 피어린 努力의 結果로서 오늘날의 競爭力을 招來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日本과 比較해 볼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技術의 蓄積과 經驗 그리고 科學이 뒷받침 못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工業化는 日本이 順風에 있었는데 比하여 世界的 逆風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先進各國의 貿易障壁의 累增·產油國의 弱화 等の 어려운 실정이 加重되어 갈지라도 自由化의 壓力만은 막을 길이 없으리라.

現在 우리나라 重電機器메이커의 水準과 問題點은 昨年 1月號의 同欄에서 紹介한 바 있거니와 여하튼 國際的 水準에는 많은 距離가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電氣界는 앞으로 어떻게 對處해 나가야 하나 그 解答은 오직 하나 뿐이다. 즉 倍前의 머리를 써야하며 倍前의 努力을 하여야 하며 메이커 뿐만 아니라 電力公社를 爲始하여 直接 政府사이드까지도 廣範圍한 協同體制를 形成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勤勉·自助·

協同의 精神을 言實共히 具現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電氣界는 昨年 1年間에도 많은 改善과 發展을 하여 왔다는 것은 電氣年鑑에 記錄되어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메이커의 新規開發品目的 增加·製品 質의 向上·各種 研究論文의 水準向上이 端的으로 說明해 주고 있다.

우선 電力公社를 보더라도 發電施設容량은 1,419萬kw에 달했으며 곧 竣工될 古里 5號機를 計치면 1,514萬kw로서 完全히 國際的 規模에 到達하여 電氣 質의 向上과 더불어 Loss의 減少, O·A의 급속한 進展을 일거할 수 있으며 메이커들도 「P·C·」를 위시하여 많은 新規開發을 하였으며 가장 어렵게 생각되었던 原子力發電所의 建設에 있어 國產化率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重電機器의 總生産量은 昨年 比 約12% 增加인 4千8百億원으로 推算되고 있다. 輸出에 있어서도 1億2千3百萬\$로 推算되어 前年 比 15% 以上の 成長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그 理由로서는 아직도 많은 部分이 國產化가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發電所建設의 主機器인 發電機와 터빈의 完全國產化는 아직도 요원하며 여타의 部分도



많은 부분이 국산화는 일단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需要處가 要求할 것으로 豫測되는 高性能·自動化를 만족시킬 수 있는 製品은 自由化의 과도를 타고 반드시 넘어 올 것이라는 點이다. 그뿐만 아니라 日本과 比較해 볼 때 性能面에서 一般的으로 아직 뒤지고 있으며 生産性 역시 平均 2.5倍 정도의 隔差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그 原因으로서서는 무엇보다도 需要가 너무 적어서 完全한 量産体制을 定立하지 못하고 있으며 原資材 部品 등의 外國依存度가 높으며 技術과 熟練度의 취약은 品質向上과 原價節減의 隘路를 形成하고 있다 그리고 全社的 品質管理運動에 있어서도 一般的으로 技術과 品質管理의 概念을 混同하고 있으며 近代化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問題들의 責任은 原則적으로는 메이커側에 있다 할지라도 余他與件에도 많은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製品의 性能을 向上시키고 原價를 節減시키며 그 토대위에서 新製品을 開發할 수 있는 研究活動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테크노러지」와 「베이식 사이언스」의 發展이 미흡하다는 것을 들수 있으며 第2次的으로는 國際的 水準을 指向한 合理化 投資를 위한 金融制度의 痲痺와 生産施設投資에 대한 意欲衰失症을 들 수 있다.

다음은 先進各國이 다투어 到達해 가고 있는 産業電子利用의 基盤이 전혀 形成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 方向은 重電機業界 뿐만 아니라 機械工業을 위시하여 여타 産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分野로서 尖端技術의 核을 形成하고 있으며 先進祖國의 建設을 위한 絶對的인 過程이므로 新年度 부터는 모든 메이커들의 重點 攻略의 對象이 되어야 할 것

이다.

그외에도 業界發展의 羈絆이 되는 重要的 要因들이 남아 있으나 그러한 點들은 여기서 論하지 않기로 하고 새해에 가장 중요한 變化의 또 한가지를 紹介하여야겠다. 83年 3月에 大統領令으로서 發布된 品質差等に 對한 價格差等制의 實施로서 晩時之感은 있으나 現在 調達廳·科技處에서 그 施行을 위한 準備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는 政府나 公共團體에서 豫算會計法에 의하여 廉價品만을 盲目的으로 購入한 결과 惡貨가 良貨를 驅逐하여 品質向上의 動機를 抹殺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外國에서의 國際入札에서 여러번 고배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벨류에이션」이였었다. 이 制度가 實施되어 一般化되면 民間 實需要者 뿐만 아니라 中間建設業界까지도 역시 質을 따지는 風土가 形成될 것이다. 따라서 각 메이커들도 國際的 水準을 向하여 研究하고 製作에 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生存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風土는 비단 重電機器業界 뿐만 아니라 一般機械를 爲始한 他産業分野에 波及되어 品質向上과 原價節減은 自律的으로 至上目標가 되어 韓國商品을 急上昇시킬 것은 명료한 일이다.

이 過程에 있어서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自由化의 과도도 대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國際水準에 빨리 到達하여 國內에 있어서의 에너지 節減은 물론 나아가서는 過去 輸出의 年 15% 增加線을 훨씬 上廻하여 倍增시킬 수 있을 것이며 累積되어 가고 있는 貿易赤字를 解消시키고 國民經濟의 主導産業으로 成長할 수 있는 것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

*